

이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한 제트기에 관한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40,000 피트 상공에서수평을 이루자 승객들은 큰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녹음입니다. 여러분은 완전 전자식 제트기를 타고 비행하는 최초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전자식으로 이륙했으며 현재 40,000 피트 상공에서 전자식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전자식으로 착륙할 것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조종사, 부조종사, 비행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잘못될 일... 잘못될 일... 잘못될 일... 잘못될 일..."

우리의 제트기 시대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정교하고 도덕적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물결이 허리케인처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 뉴스 잡지는 "지난 14 년 동안 미국에서는 강도 255%, 강제 강간 143%, 가중 폭행 153%, 살인 10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1 고 보도했습니다.

통계는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냉정합니다. 서부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사립 대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강도나 강간을 당할까 봐 밤에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이야기를 한 아버지는 딸을 대도시의 위험한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곳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빴습니다.

더 이상 도시에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여성이 권총을 휘두르거나 사무실에서 퇴근하던 남성이 폭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나이를 존중하지 않으며, 많은 지역에서 노인들이 공포의 악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노인과 무일푼 남성 3 명을 질식사시켜 살해한 혐의로 10 대 청소년 6 명(그 중 한 명은 13 세)을 기소했습니다. 한 남성은 기도 목도리가 입에 낀 채로 사망했습니다.

인간은 모순입니다. 한쪽에는 증오와 타락과 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친절과 연민과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도움이 필요 없는 죄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의 질병을 "죄악의 신비"라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병에 걸렸고 그 병이 무엇이든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거나 범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입니다.

죄의 시작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죄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으로 알고 있는 천사에게서 시작되었다고 가르치면서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암시합니다. 사탄은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가장 장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 고귀한 존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당신은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으며, 내가 당신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습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네게서 불의가 발견될 때까지 네 길에 흠이 없었다"(겔 28:14,15, 강조는 필자).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과거에 이 장엄한 하늘의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속에서 죄가 발견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악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힌트를 제공합니다."아침의 별이여,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Lucifer], 새벽의 아들! 열방을 약화시킨 그대여, 너는 땅에 엎드려졌구나! 그러나 당신은 마음 속으로"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세우고 북쪽 오목한 곳에있는 집회 산에 앉을 것입니다. 나는 구름 높이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스올, 구덩이의 움푹 패인 곳으로 밀려 내려갈 것이다"(사 14:12-15, 강조는 내 몫).

그럼이 있습니다. 루시퍼의 죄는 다섯 가지 "내 의지"의 죄였습니다. 그는 과도한 야망으로 인해 타락하여 사탄이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자만심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자만하여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딤후 3:63)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할 때 교만 또는 자만의 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탄에서 죄인으로

죄는 루시퍼의 반란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란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위한 삶" 대신 "자신을 위한 삶"을 대신합니다.

성경은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들어왔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아름다운 에덴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했고, 하나님은 지혜롭게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두 번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롬 5:12-19, 창 3:1-8, 딤후 2:13,14 참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인간 로봇으로 창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피조물이 사랑의 응답으로 창조주를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자유 의지"가 행사될 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강요된 사랑과 순종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닌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목사 친구가 주립 대학에 다니며 "매우 지혜로워진"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의 단순한 기독교 신앙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아들아, 그게 바로 네 자유야, 네 끔찍한 자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이자 우리에게도 주신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끔찍한 자유".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반역하여 하나님 없이 세상을 건설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의 시험이었고, 그들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죄는 반역이다

모든 낙원을 누릴 수 있는 아담과 이브가 반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역의 원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한일서 2:16)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와가 굴복한 정욕의 유형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보매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창 3:6).

수 세기 후,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똑같은 세 가지 유혹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이로써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마 4:1-11).

십계명은 탐내거나 욕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도덕법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멈추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부모가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 엄격하다"고 비난합니다. 아버지가 십대 자녀에게 "11 시에 들어와서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려줘"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한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 행위의 결과는 즉각적이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죄는 삶의 완고한 사실이 되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우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 영역에서 행성들은 찰나의 순간에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추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하계에서. 우리는 자연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정연하며 순종적인 계획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우주를 만드신 신이 더 높은 영적, 도덕적 질서에서 덜 엄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질서를 용납하실 수도 없고 용납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순종하면 조화와 성취를 가져다 주지만 불순종하면 불화와 무질서를 가져 오는 영적 법을 정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사탄과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했을 때, 그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아담이 알던 아름다움, 자유, 교제의 삶은 사라지고 죄로 인해 생명이 죽게 되었으며, 자연은 저주를 받았고 죄의 독이 온 인류 가족을 감염시켰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부조화 속에 던져졌고 지구는 이제 반란을 일으킨 행성이 되었습니다!

빛나간 과거

신약성경에서 죄라는 용어의 번역 중 하나는 "목표를 놓친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표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조차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가장 강렬하고 흥미진진한 광경 중

하나는 바로 세계 올림픽입니다.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수년간 훈련한 선수들은 종종 목표에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중 한 명은 넘어지면 자신의 연기가 망가질까 봐 특히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2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으며, 완벽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은 모두 타락하여 함께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시 14:3)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나이다"(사 53:6)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보라 내가 죄악 중에 났으며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혼했지만 부모로부터 죄를 짓는 경향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아담이 한 일 때문에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담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에 따라 죄인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나이에 이르러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헐뜯거나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중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동아프리카의 한 동물 보호구역에서는 사자들이 마치 원래 서식지에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동차나 지프를 몰고 이 지역을 지나면서 사자를 관찰하지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한 여성은 사자를 더 잘 보기 위해 차 창문을 내렸고, 경고도 없이 사자가 돌진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 사자는 그렇게 길들여지고 온순해 보였지만 한순간에 사나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창 4:7). 우리 대부분은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육체적 욕망의 상황에서 그는 다른 남자의 여자를 취한 다음 남편을 전투 최전선에 투입하여 남편이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썩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율법의 근본 요건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죄를 범하고 정죄를 받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롬 1:18).

무엇에 대한 유죄!

성경은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말을 듣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눈을 가리고 너무 짝 묶어 완전히 어둠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다음 방 건너편에 다트 판이 있고 다트로 그 판을 맞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시를 받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다트를 던졌지만 눈가리개를 벗었을 때 다트가 표적에서 3피트 떨어진 전등갓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조준했지만 빗나갔습니다.

솔로몬이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은 있어도 그 끝은 사망의 길뿐이니라"(잠 14:12)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가리개를 열어 소량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적어도 목표물의 윤곽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한 소녀에게 일반적인 방향 감각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손을 내밀어 보려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저는 열일곱 살이고, 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녀의 편지는 그녀가 현재의 삶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없는 삶은 일종의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그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그녀가 "심각한 문제"에 처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녀는 공동체 앞에서 체포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어 죽음, 즉 영적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덕적 판단력을 날카롭게 하는 일련의 기준,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의 뼈 구조를 드러내는 거대한 엑스레이 기계와 같습니다. 처음 네 개의 엑스레이 판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엑스레이 판독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출 20:3). 다른 신은 반드시

뜻대로 만든 부처나 조각된 토템 기둥이 아니며,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신입니다. 스포츠 또는 일이나 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섹스가 신이 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행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출 20:4)는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느니라"(삼상 16:7). 경건함으로 가득 찬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헛되이 여기지 말라"(출 20:7). 이는 욕설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주님 같은 신에 대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찬송가의 가사를 입에 올리거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름도 알렉산더인 불명예스러운 인물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삶의 방식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 성경에서는 7 일 중 하루는 특별한 예배와 휴식을 위해 따로 정해진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막 2: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특별한 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도 우리의 영이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휴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말을 예배를 제외한 긴 여가와 오락의 시간으로 만드는 관행은 여가와 예배의 이점을 모두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국가나 개인은 육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고통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는 가끔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출 20:12). 이 파세이지에는 공경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공경하기 위해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명예스러운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우리가 자녀일 때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경, 유머, 재정적 지원, 존경. 하지만 가정에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 가혹한 말이 자주 들립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교회에서 친구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부모님에게는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출 20:13). 이 명령의 이전 번역에서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합니다. 살인이라는 외형적인 행위는 많은 감정의 마지막 행위입니다. 그 뒤에는 짜증, 시기, 증오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과거에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재판관 앞에 서게 되고, 누구든지 형제를 '쓸데없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 앞에 서게 되며, 누구든지 형제를 쓸모없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가는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마 5:21-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없더라도 그러한 법 앞에 정죄를 받습니다.

"간음하지 말라"(출 20:14).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비기독교권에서 부도덕과 음란이 종교의 보호 아래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은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 가져온 완전히 새로운 덕목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3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 계명은 순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내나 남편을 공경하지 않는 것 이상을 포함하며, 성관계에 몰두하는 마음가짐, 심지어 욕망이나 정욕의 태도로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4 하나님에게 순결은 먼저 마음의 문제이고, 그다음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이런 용어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말이 맞습니다.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0:16). 우리는 증인을 법정에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하지만 재판장님, 제 개가 이웃을 물었습니다. 그는 큰 몽둥이로 제 동물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대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개가 도발하지 않고 이웃의 다리를 물어뜯은 것이라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해한' 방식으로 험담을 한다면 어떨까요? 계명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출 20:17)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행위입니다. 탐내는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할 때 그것은 탐심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 대한 생각을 이웃의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어

이혼으로 끝난 결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고 들었는데, 이는 이웃의 새 집, 자동차, TV 세트 또는 진입로에 있는 캠핑카를 의미합니다.

엑스레이 결과

십계명을 통찰력 있게 읽으면서도 정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사도 야고보는 계명 하나만 어겨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쇠사슬로 구덩이에 매달려 있다면, 몇 개의 고리가 끊어져야 구덩이에 빠질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걸려 넘어지면 모든 것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것이니라"(야고보서 2:10).

성경과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심각하게 목표를 놓쳤으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록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고통스럽게 깨달은 한 청년의 말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내 인생은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열세 살이 되기 전까지 저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모두 도둑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체포되었습니다. 소년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나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가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밤 텔레비전에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과거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기초를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주실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죄가 우리 삶의 패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죄의 덫에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었다면 저는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이 없었다면 아마 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